

2019-09-15 일 지공여행 12차 부천 신중동

갑오징어와 시골막걸리를 마시고 싶어 버르고 왔는데 휴일

아쉬워 용!

간밤 사무실에서 자던 중 주위가 시끄러워 몇번이나 깼고 새벽 4시부터 운동을 했더니만 피곤하여

집에와서 용이 재워주기에 끄끙대며 곤하게 한잠 잤다.

슬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카스테라도 나눠먹어서인지 배가 많이 고프지 않기에 부천으로 가서 시골막걸리를 찾아봐야겠다.

중간에 광명시장 빈대떡을 떠올리고 전을 먹고 싶어 광명역 하차

시장을 몇바퀴 돌며 탐색하고 예전 박사장과 왔던 집으로 들어가 모듬전12,000 퓨짐하여 용미슬에게 미안하였는데 먹어보니 엉망이네. 고기는 없고

소시지와 호박으로 위장된 모듬전. 명태가 있어 다행이지만...

역시 용이 만들었던 전이 정말 알차고 맛있었어.

간신히 막걸리 한 병을 비우며 전을 다먹고서 다시 길을 나섰다네.

보따리 장사처럼...

지하철에 붙은 성공회대 수시모집 광고들

"잠자는 토끼도 잘못이나 그냥 지나친 거북이도 문제

깨워서 같이 가야 된다"

멋진 글이네.

그러나 깎은 것을 연속 붙여놓으니 더 볼게 없다 아쉬운 홍보 전략!!!

신중동역에서 내려 둘러보고 부천역으로...

생일에 미안하다며 안부를 전해 온 재식이를 생각하며 걸었다.

리첸시아 화장실에 흔적을 남기고 졸린 눈으로 심곡천을 넘어 부천역으로 왔다.

어마이갓 5마이갓... 간판이 창의적이다.

큰길에 있는 성인용품점은 뭐야?????

골목길을 돌고 돌아 부천역에 도착하니 오래전에 용과 같이 와서 부천대학교를 둘러본 뒤 콩
나물불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

피곤하니 자꾸 눈꺼풀이 내려온다. 졸다가 온수역을 넘어가면 안돼지...

참고 참으며 7호선을 탔다. 이젠 졸아도 될 듯

ㅋㅋㅋ

즐거운 12차 지공여행 이었음.

서울시와 국가에 감사

